

KBS journal

SPECIAL THEME

TV 속 봄, 2013년 봄 개편

ON THE SPOT

연기자 조권, 프로를 꿈꾸다

NEW DRAMA

로맨틱 생존 코미디, 직장의 신

Contents



STARS

- 3 **TIME MACHINE** 사랑스러운 캔디에서 시대의 만달로, 손태영
- 4 **THE VIEW** '1박 2일'의 새 만형이 되는 유해진, 감추어 둔 매력 개봉 박두!
- 5 **ON THE SPOT** 연기자 조권, 프로를 꿈꾸다

SPECIAL

- 8 **SPECIAL THEME** TV 속 봄
- 10 **SPECIAL THEME1** TV와 라디오에 피어난 봄, KBS 2013 봄 개편
- 12 **SPECIAL THEME2** KBS 봄 개편의 키를 쥔 그들, HOT 8

ON AIR

- 14 **NEW DRAMA** 로맨틱 생존 코미디, 직장의 신
- 18 **HOT ON AIR** TV 다시 보기 & 미리 보기
- 19 **FROM KBS** KBS 소식들

BEHIND THE SCENES

- 20 **SCOOP** '조희팔 사건'은 진행형이다
- 24 **PRODUCT NOTE**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힐링 프로그램 <가족의 품격 풀하우스>
- 26 **CURIOS** KBS 프로그램에 대한 깨알 같은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WITH KBS

- 28 **LOVE KOREAN** <도전 골든벨> 정지원 아나운서의 한국어 퀴즈
- 29 **THANKS KBS** <한 지붕 세 남편>, 고은 맘 김세미 씨의 행복 찾기
- 30 **BOOK GALLERY** 데니스 홍 교수의 교보문고 북갤러리

온라인 <KBS 저널> · 2013년 2호(창간 등록 1988년 3월 12일) 잡지등록 · 2010년 3월 30일 등록번호 · 영등포구 라 00236 온라인 <KBS 저널>에 실린 기사와 사진 등 모든 내용은 한국방송의 허락 없이 옮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은 KBS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발행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번지) KBS 한국방송 | 대표전화 · 02-781-1000 | 편집실 · 02-781-2842 | 발행 겸 편집인 · 김환영 | 홍보실장 · 김홍식 | 홍보 · 이은숙, 유민정 | 사진 · 남궁돈, 박재현, 이민규, 장병희 | 사진 자료 · 황미영 | 제작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2-35 (주)서울문화사 브랜드마케팅팀 | 전화번호 · 02-799-9266 | 사업 총괄 · 양문실 | 제작 총괄 · 박인숙 | 편집장 · 김선아 | 에디터 · 최미혜 | 교정 · 이주선 | 디자인 · (주)토가디자인 장현수(02-737-4643)

온라인 <KBS 저널> 접속 방법 • PC 및 스마트폰 : PC 버전은 주소 창에 ijournal.kbs.co.kr 입력, 모바일 버전은 주소 창에 mijournal.kbs.co.kr 입력

● **아이패드** : 앱스토어에서 'KBS BOOK Store' → 온라인 <KBS 저널> 다운로드 | 교보문고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E-book 형태로 <KBS 저널> 콘텐츠를 보실 수 있으며, 국회 및 국립중앙전자도서관에서도 온라인 <KBS 저널> 콘텐츠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사랑스러운 캔디에서 시대의 만달로

10년 전 드라마 <백만송이 장미>에서 웃음을 잃지 않는 캔디 같은 모습에서 <최고다 이순신>에서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시대의 만달까지, 손태영의 과거의 현재.

에디터 김선아 사진 KBS 홍보실, 에이스토리



BEFORE 두 남자의 사랑을 동시에 받는 '캔디'

30%가 훌쩍 넘는 시청률을 자랑하며 인기를 얻은 2003년 작 드라마 <백만송이 장미>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손태영의 풋풋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 드라마에서 그녀는 가정을 돌보지 않는 무책임한 아버지 대신 생활비를 벌면서도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깨끗하고 밝은 성격의 박혜란을 연기했다. 박혜란은 부모의 재혼으로 가족이 된, 성(姓)이 다른 두 형제 민재(이창훈)와 현규(김승수)의 사랑을 동시에 받는 여자. 일일연속극 첫 주연을 맡은 그녀는 현규와의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식을 올려 시청자들의 시선을 잡아 끌었다. 그러나 사진 속 신랑, 신부의 얼굴이 마냥 밝지 않은 이유는 손태영의 아버지 이정길(태일)이 자격이 없다며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AFTER 모범적 인생을 살아가는 '시대의 만달'

주말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에서 첫째 딸 이혜신 역을 맡은 손태영은 성숙해진 분위기와 함께 전보다 안정되고 섬세해진 연기를 보여 주고 있다. 드라마에서 이혜신은 이순신(아이유)의 큰언니로 미모와 재능, 조신한 성격까지 부모님이 바라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랑스러운 첫째 딸이다. 손태영은 자신이 연기하는 이혜신에 대해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딸이다. 모범 답안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더욱 말 못하는 고민이 있는 인물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련 속에서도 가족들을 품으며 나아가는 모습이 따뜻하고 용기 있어 보인다"라고 소개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시련을 겪는 가족들을 따뜻하게 보듬으며 더욱 믿음직한 만달로,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이다.



‘1박 2일’의 새 맴형이 되는 유해진, 감추어 둔 매력 개봉 박두!

〈해피선데이 - 1박 2일〉의 새 맴형으로 합류한 유해진. 곱지 않은 얼굴이지만 마음만은 반듯한 그의 매력 속으로 들어가보자.

글 고규대
〈이데일리〉 문화부장 ·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연예매니지먼트학과 교수

길고 가느다란 눈매, 특 튀어나온 입술, 날카로운 외양. 배우 유해진의 걸모습을 보면 미남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준기, 강동원 등 함께 출연한 꽃미남 배우와도 구별된다. 그럼에도 영화 〈왕의 남자〉에서 그의 연기가 빠졌다면 어땠을까 상상하기 힘들고, 영화 〈전우치〉에서 강동원과 투톱 주연이 아니었다 고개를 가웃거리게 한다. 바로 유해진의 매력이다.

유해진을 처음 만난 때는 2002년 영화 〈공공의 적〉 촬영 당시였다. 1997년 〈블랙잭〉으로 스크린에 데뷔했고 영화 〈주유소습격사건〉으로 주목받았지만 그가 제대로 얼굴을 알린 작품은 〈공공의 적〉이었다. “어이, 이 친구 유심히 좀 봐. 잘될 거야.” 강우석 감독은 영화 스틸 사진에 담긴 몇몇 조연 중 유해진을 꼭 짚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자신의 칼 다루는 솜씨를 자랑하는 〈공공의 적〉 용만의 캐릭터는 유해진의 몫이었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유해진의 첫인상은 무뚝뚝한 남자였다. 수줍음도 많았다. 혹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금세 얼굴이 달아올랐다. 거친 외양과 달리 속내는 여린 남자라는 인상이 짙었다. 그 역시 갑작스러운 세간의 관심이 의아스러우면서도 즐거운 눈치를 감추지 않았다.

유해진은 강우석 감독과 당시 강 감독이 이끌던 영화 투자 배급사인 시네마서비스의 영화에 자주 얼굴을 내비쳤다. 그가 가진 매력을 오롯이 살려 내려는 제작진의 뜻도 있었을 터이다. 〈라이터를 켜라〉, 〈광복절 특사〉 등의 출연으로 이어지더니 마침내 그의 스타성을 인정받게 됐다.

유해진이 ‘1박 2일’에 합류한다는 소식에 그의 매력이 시청자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궁금해진다. 10여 년을 지켜본 유해진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주연이든 조연이든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변하기 마련인 게 이 바닥 정서다. 유해진은 여전히 무뚝뚝하고, 수줍어하고, 말을 아꼈다. 영화 〈간첩〉 개봉 당시 기자단과 전체 만남을 가질 때도 한 칸에서 지인들과 조용히 앉아 맥주잔을 부딪칠 뿐이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일단 친해지면 영화 〈왕의 남자〉의 육갑, 〈전우치〉의 초랭이처럼 유머 넘치는 말솜씨를 보여 준다.

유해진의 소속사인 심엔터테인먼트 심정운 대표는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많지 않아서 출연 제의를 받고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최재형 PD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세희 PD가 약방의 감초가 아닌 디너의 메인 디시 같은 그의 매력을 찾은 덕이다. 유해진은 스스로 콤플렉스가 많다고 말한다. 그런 성격은 사람을 관찰하는 것을 즐기고, 책이나 영화를 통해 다른 세계를 접하게 만들었다. 유해진 역시 야생 버라이어티를 벗어나 새로운 포맷으로 ‘1박 2일’을 꾸민다는 말에 고민 끝에 출연을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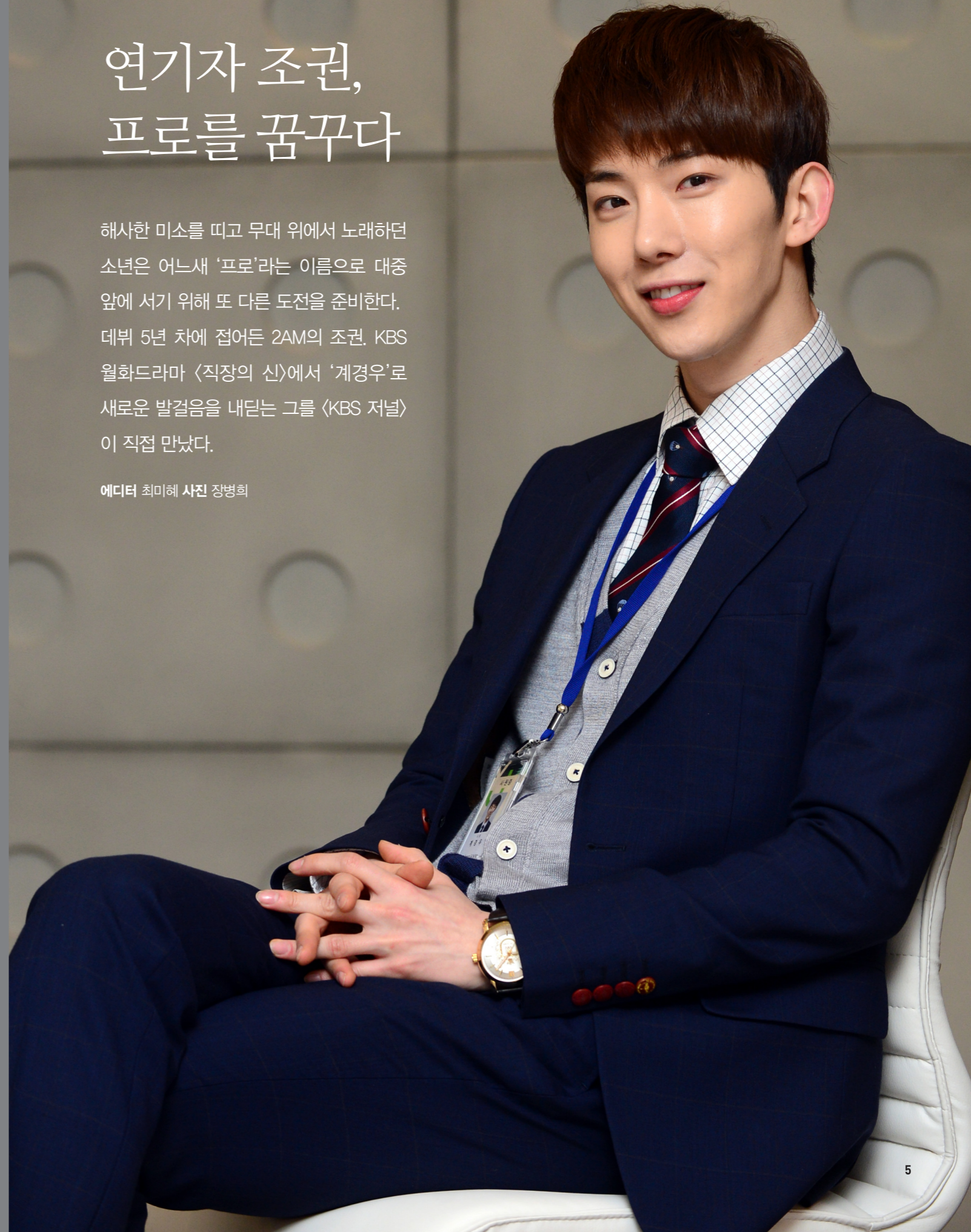
어찌 보면 유해진은 부풀어 오른 풍선 같은 존재다. 풍선 안에 갖가지 재능이 숨겨져 있다. ‘1박 2일’이 그 풍선을 터뜨리기만 하면 시청자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의 매력에 눈을 돌릴 것 같다. 데뷔 15년 차이지만 여전히 수줍어하는 유해진의 ‘발동’ 거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다.



연기자 조권, 프로를 꿈꾸다

해사한 미소를 띠고 무대 위에서 노래하던 소년은 어느새 ‘프로’라는 이름으로 대중 앞에 서기 위해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한다. 데뷔 5년 차에 접어든 2AM의 조권. KBS 월화드라마 〈직장의 신〉에서 ‘계경우’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그를 〈KBS 저널〉이 직접 만났다.

에디터 최미혜 사진 장병희





지난 3월 27일, 첫 방송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긴장감보다 활기로 가득 찬 드라마 <직장의 신> 촬영 현장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최근 정규 2집 앨범으로 돌아온 2AM의 리더 조권이다.

2011년 MBC 시트콤 <몽땅 내사랑>을 통해 연기를 경험했지만 정극 연기는 처음이다. 굉장히 떨린다며 말문을 연 그는 “시트콤으로 연기에 처음 도전했을 때 첫 신을 찍었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이번에 <직장의 신>에 합류하고 첫 신을 찍을 때 그 느낌을 다시 받았어요”라며 드라마에 대한 기대를 표현했다.

“유명한 배우분들이 많이 출연해서 덩달아 저까지 관심을 받은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잘 촬영하고 있고, 정말 재미있는 작품이 될 것 같아 기대하고 있어요. 선배님들께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는 자신뿐 아니라 <직장의 신>에 출연하는 모든 배우들과 스태프들 역시 드라마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덕분에 촬영장 분위기는 늘 화기애애하다.

조권은 <직장의 신> 시놉시스와 대본을 받자마자 바로 참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배역의 비중이나 분량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 <직장의 신>은 무조건 하고 싶은 작품이었다고. “원작인 <파견의 품격 - 만능사원 오오마에>를 재

미있게 봤어요. 그래서 리메이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했구요. 게다가 캐스팅된 선배님들을 보니 제가 배우 점이 많을 것 같았어요.”

그는 연기자 선배들에게 배우고 싶은 것으로 ‘프로페셔널함’을 꼽았다. “촬영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특히 김혜수 선배님은 자신이 맡은 캐릭터에 대해 본인 스스로 확고하게 알고 있음을 연기로 보여 주세요. 배역에 녹아들어 자연스럽게 나오는 연기, 그런 프로페셔널함을 본받고 싶어요.”

<직장의 신>에서 그가 맡은 배역 ‘계경우’는 드라마 배경이 되는 회사 Y-Jang의 상반기 공채로 입사한 정규직 신입 사원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예의 바르기로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다. “제가 현재 드라마에 임하는 긴장된 마음을 경우에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극 중에서 경우가 신입 사원인데다 막내거든요. 현실의 저도 현장에서 막내고요. 촬영하면서 느끼는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을 캐릭터에 그대로 이입해서 리얼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조권이 속한 그룹 2AM의 멤버 이창민, 임술웅, 정진운 역시 연기 경험이 있다. 드라마로 영화로 뮤지컬로 진출했던 멤버들은 정극에 도전하는 그에게 어떤 조언을 했을까? 조권은 “멤버들이 <직장의 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요. 재미있을 것 같다고요. 슬웅 형은 조명감독님께 잘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쁘게 나와야 된다고” 하며 웃어 보였다.



“전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화까지 한다면 연예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다 한 것이 되겠죠. 장르를 꼽자면 로맨틱 코미디? 제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큰 변신보다는 대중들이 제게 원하는 모습으로 다가가고요. 연기 변신은 연륜이 쌓이면 그때 하고 싶어요.”

끼 많은 그가 또 다시 연기에 도전한 이유는 바로 연기의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래서 그가 연기에 어떤 매력을 느꼈는지 물었다. “인생은 한 번 사는 거잖아요. 연기가 아니면 전 쪽 조권으로만 살겠죠. 배우는 맡은 배역에 따라 각각의 삶이 있는데, 제가 그걸 표현하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배우들이 모여 한 드라마 안에서 연기하는 것도요.” 연기의 롤 모델로는 엄정화를 꼽았다. 본업은 가수지만 꾸준히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데다 가수로서도 배우로서도 아우라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데뷔 후 가장 왕성한 솔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조권은 한마디로 요즘 ‘일복이 터졌다’고 말한다. 2집 앨범 활동과 동시에 드라마 <직장의 신>에 투입됐고, 4월 말에는 최연소 헤롯 역을 맡아 화제가 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도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애니메이션 <피노키오: 당나귀 섬의 비밀>에서 피노키오 역을 맡아 더빙도 했다.

“앨범 활동은 예정돼 있던 거고요. 어쩌다 보니 맞물려 제 의가 들어와서 바빠졌어요. 하지만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은 제가 다 원해서 하는 일이에요. 뮤지컬은 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어요. 제가 맡은 헤롯은 극 중에서 신이 하나

라서 혼자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배우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저 역시 부담이 덜 되고요. 애니메이션 더빙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선택했고, 드라마도 정말 하고 싶어서 하게 됐어요. 음반 활동도 이제 마무리됐으니까 <직장의 신>에 올인해야죠. 배역에 적응하고 캐릭터에 완전히 심취하고요. 차례대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권은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냐는 물음에 영화라고 답했다. “전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화까지 한다면 연예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다 한 것이 되겠죠. 장르를 꼽자면 로맨틱 코미디? 제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큰 변신보다는 대중들이 제게 원하는 모습으로 다가가고요. 연기 변신은 연륜이 쌓이면 그때 하고 싶어요.”

그는 늘 자신감 있고 당당할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이 팬들의 관심과 사랑이라고 말한다. 어느 곳을 가든 그를 반갑게 맞아주고 응원해 주는 팬들이 있기에 그 에너지를 받는다고. 이어지는 스케줄로 이동 시간에 자는 쪽잠이 전부일지라도, 대사 하나 까먹을까 긴장감에 사로잡혀도 대중에게 프로다운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 그는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말 그대로 ‘프로’였다. 앞으로도 멋진 음악과 연기, 그리고 자신의 끼를 십분 발휘해 성장해 나갈 조권. <직장의 신> 계경우로 브라운관을 누빌 그의 모습이 기대된다.

TV 속 봄

새봄을 시기했던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었다.
2013년 봄 개편을 준비하며 KBS도 새봄맛이가 한창이다.

에디터 김선아 사진 KBS 홍보실



KBS 글로벌 24



여풍당당



대한민국 행복발전소



문화 책갈피

TV와 라디오에 피어난 봄, KBS 2013 봄 개편

시청자와 함께하는 공영방송 KBS가 봄 개편에 들어갔다. 정보와 재미를 두루 갖춘 양질의 콘텐츠로 시청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KBS의 2013 봄 개편 라인업을 소개한다.

에디터 최미혜 사진 KBS 홍보팀

겨우내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봄기운을 만끽하는 4월, KBS 역시 방송에 신선한 기운을 불어넣을 봄 개편을 단행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2013 봄 개편 방향의 골자는 크게 다섯 가지이다. 첫째는 '공영성의 강화'다. 우리나라 방송 최고의 명품 다큐멘터리로 손꼽히는 <KBS 스페셜>을 비롯해 <역사 스페셜>, <환경 스페셜>, <과학 스페셜> 등 다큐멘터리 역사의 획을 그은 4대 다큐멘터리 스페셜을 통합하고, 소재와 형식에 제한이 없는 고품격 다큐멘터리 <KBS 파노라마>를 신설했다. 또 글로

벌 시장 개척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소개하는 <히든 챔피언>, 여성을 위한 시사 문화 지식 토크 <여풍당당>, 순수예술부터 대중문화 영역까지 아우르는 문화 매거진 <문화 책갈피>, 우리네 이웃들이 주인공으로 나서는 공익 버라이어티 <대한민국 행복발전소>와 <당신이 바꾸는 세상>, <노인, 세상에 말을 걸다>를 신설해 공영방송으로서 책임을 다할 예정이다. 둘째는 편성 구조 혁신을 통한 '다양성 확대'다. 주로 1TV에서 이뤄지며, 평일 밤 11시대에 <긴급출동 24시>, <다큐 공감>

<히든 챔피언>, <고향극장>, <취재파일 K> 등 요일별로 섹션화된 프로그램을 신설·편성해 다양성을 강화한다. 주말 저녁 시간대에는 6·25 이후의 현대사를 풀어낸 <다큐 극장>을 신설했고, 치열한 인생을 살아온 이들의 삶과 지혜에 대해 들어 보는 <강연 100℃>를 편성해 현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는 종일 방송 본격화에 따른 '심야 뉴스 강화'다. 시청자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지난해 10월 이후 24시간 방송이 본격화되면서 이른바 '지상파 종일 방송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KBS 뉴스라인>의 방송 시간을 평일 밤 11시에서 11시 30분으로 이동하는 등 방송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넷째는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창(窓) 확대'다. 글로벌 시사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평일 밤 12시에는 국제 뉴스 <KBS 글로벌 24>를 신설했고, 토요일 밤에는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춘 글로벌 시사 정보 프로그램인 <세계는 지금>을, 일요일 밤에는 <KBS 특선 다큐>를 편성함으로써 KBS가 글로벌 채널로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다섯째는 '2TV 채널 경쟁력 강화'다. 2TV의 평일 밤 예능을 책임지고 있는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3>, <가족의 품격 풀하우스> 등에 이어 생활 밀착형 버라이어티 <우리동네 예체능>이 신설됐다. 예능의 최강자 강호동이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에게 공감대와 즐거움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되는 프로그램이 많은 만큼 시간대나 방송 요일이 변경되는 프로그램도 다수다. 대표적으로 1TV의 <클래식 오디세이>, <영화극장> 등과 2TV의 <생생정보통 스페셜>, <개그콘서트> 등이 10분 정도 확대 편성돼 시청자를 찾아간다.

KBS 라디오 역시 봄 개편을 통해 음악의 날개를 펼친다. 1라디오는 종합 편성 채널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대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행복한 시니어>, <라디오 주치의 이충현입니다>, <시사퀴즈왕>, <경제 나침반>, <생방송 글로벌 대한민국 1, 2부>, <스마트 라디오>, <문화 공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2라디오 해피FM은 아날로그 감성으로 청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40대 이상 청취자를 위한 콘텐츠를 강화한다. 오랜만에 DJ로 복귀하거나 DJ로 데뷔하는 스타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당신의 아침! 박은영입니다>, <매일 그대와, 김동규입니다>, <왕영은의 해피타임 4시>, <이소라의 메모리즈>, <진양혜의 음악공감>, <한밤의 영화음악실> 등을 신설해 채널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3라디오는 방송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청취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013 봄 개편 제안 공모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이형걸의 아날로그 라디오>를 신설해 소외 계층의 삶 속 아픔과 일상의 고단함을 달래고 풀어 주는 시간을 갖는다.

생활 속의 클래식FM 구현을 목표로 하는 1FM에서는 전통 문화 계승과 보전을 위한 <국악의 향기>가 신설됐고, 기존의 프로그램인 <세상의 모든 음악>, <FM 음반가이드>, <정다운 가곡> 등은 방송 시간을 변경해 운영한다. 2FM 쿨FM에서도 신선한 변화가 눈에 띈다.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 음악 전문 프로그램 <뮤직쇼>를 맡아 온 가수 데니안의 바통을 이어받은 밴드 '뜨거운 감자'의 보컬 김C가 7년 만에 라디오 DJ로 복귀해 특유의 입담을 들려준다. 심층 경제 정보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다문화 콘텐츠를 강화한 국제 방송은 11개 언어로 방송되는 <경제 인사이드>를 비롯해 <쑤인 코리아>, <뉴스 와이드>, <월드 초대석> 등 프로그램마다 15분 동안 다양한 언어로 진행되는 방송을 신설해 실질적인 정보뿐 아니라 외국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고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KBS 봄 개편의 키를 쥐는 그들,

HOT 8

누가 프로그램을 대표하느냐에 따라 그 프로그램의 성패가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로그램의 얼굴이자 수많은 스태프와 연출진의 기대를 짊어지고 시작부터 끝까지 긴 호흡을 이어 가는 이들. KBS 봄 개편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 HOT 8을 꼽아 봤다. **에디터 최미혜 사진 KBS 홍보실**

DRAMA

월화드라마 <직장의 신>의 김혜수

● 정말 제대로 망가졌다. 드라마 <직장의 신>으로 브라운관에 화려하게 컴백한 김혜수는 요즘 단연 화제다. 슈퍼 갑 계약직 미스 김으로 분한 그녀의 내숭 없는 코믹 연기에 쓰러지는 이들이 한 둘이 아닐 정도. 영화 <아저씨>의 원빈이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자르던 장면을 패러디하는가 하면, 포클레인을 능숙하게 모는 반전 매력을 선보이고, 살사 댄스로 매력적인 모습을 연출하는 등 변화무쌍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김혜수. 얼마나 망가지느냐보다 어떻게 망가져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며 살아 있는 캐릭터를 소화하는 그녀의 등장이 반갑다. **KBS2 월, 화 밤 10시 방송**

수목드라마 <천명>의 이동욱

● 드라마 <난폭한 로맨스> 이후 예능을 종횡무진하며 색다른 매력을 보여 줬던 이동욱이 1년여 만에 또다시 KBS 드라마로 대중 앞에 선



다. <아이리스 2>의 후속으로 4월 24일 첫선을 보이는 <천명>을 통해 데뷔 후 처음 사극에 도전한다. 극 중 인종 독살 음모에 휘말려 살인 누명을 쓰고 도망자가 된 내의원 의관 '최원' 역을 맡아 불치병인 딸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할 예정이다. 훈훈한 외모, 진정성 돋보이는 연기, 게다가 영똥한 매력까지 두루 갖춘 이동욱. 사극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지 기대된다. **KBS2 수, 목 밤 10시(4월 24일 첫방송)**

ENTERTAINMENT

<우리동네 예체능>의 강호동

● KBS 간판 예능인 강호동이 새로운 야외 버라이어티로 돌아온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버라이어티 <우리동네 예체능>이 바로 그것. 공동 MC로 이수근, 최강창민이 나서 강호동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맡는다. 세 MC가 도전자의 삶의 터전인 동네 체육관을 직접 방문하고 그 속에 녹아 있는 우리 이웃의 진솔한 모습을 소개할 예정이며, 아울러 시청자들에게 건강한 습관과 행복한 인생을 제안한다. 이



미 <1박 2일>로 야외 버라이어티의 진수를 보여 준 강호동. <우리동네 예체능>으로 진정성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KBS2 화 밤 11시 10분(4월 9일 첫방송)

<스타 패밀리쇼 맘미아>의 이영자

● 지난 2월 11일 설 연휴 예능 프로그램 1위를 차지하며 정규 편성된 <스타 패밀리쇼 맘미아>의 MC로 이영자가 낙점됐다. <스타 패밀리쇼 맘미아>는 <해피선데이 - 남자의 자격> 후속으로 연예인과 그의 가족들이 출연해 토크를 펼친다. 해가 갈수록 농익은 예능감으로 예능 신(scene)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영자는 여성 예능인의 대표 주자 박미선, 샤이니 민호와 함께 앙상블을 이루어 프로그램을 이끈다. '2012 KBS 연예대상'에서 쇼 오락 부문 최우수상을 받으며 저력을 과시한 그녀가 풀어내는 걸쭉한 입담이 프로그램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KBS2 일 오후 5시(4월 14일 첫방송)**



<1박 2일>의 유해진

● 스크린 속 모습이 더 친숙한 배우. 감칠맛 나는 연기로 자신의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있는 배우 유해진이 일요 버라이어티의 핵심인 <해피선데이 - 1박 2일>에 합류했다. 강호동, 김승우로 이어지는 만형 계보를 잇게 된 그는 최근 출연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탈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발산하며 감춰 뒀던 예능감을 심분 발휘해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은 바 있다. 허당, 먹방인 등 다양한 캐릭터를 배출했던 <1박 2일>에서 그가 어떤 캐릭터로 시청자들과 만날지 궁금해진다. **KBS2 일 오후 6시 10분 방송(4월 7일 첫방송)**



RADIO

<김C의 뮤직쇼>의 김C

● 이제는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불려도 손색없는 김C가 <김C의 뮤직쇼>를 통해 7년 만에 라디오 DJ로 복귀한다. 4월 8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김C의 뮤직쇼>는 흡인력 있는 목소리와 어눌하면서도 거침없는 솔직 화법으로 청취자들을 사로잡는 그와 함께 좋은 음악, 편안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2FM(89.1MHz) 월~일 오후 4시(4월 8일 첫방송)**



<이소라의 메모리즈>의 이소라

● 드디어 그녀가 온다. 탄탄한 음악성과 카리스마로 라디오 스타의 대명사가 된 이소라가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청취자들 앞에 선다. 특유의 음색과 깔끔한 진행, 음악에 대한 깊은 사색과 공감 능력으로 청취자와 소통할 줄 아는 DJ 이소라. <이소라의 메모리즈>를 통해 퇴근길 청취자들의 친구로 다가갈 그녀의 목소리가 기다려진다. **2라디오(106.1MHz) 월~일 오후 6시 5분(4월 8일 첫방송)**



<당신의 아침! 박은영입니다>의 박은영 아나운서

● 2TV <연예가중계>, <위기탈출 넘버원> 등 다수의 예능과 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센스 넘치는 진행을 선보여 온 박은영 아나운서가 생애 첫 DJ에 도전한다.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을 모토로 세대를 아우르는 팝과 가요를 선곡해 들려줄 예정이다. 또한 이휘재, 은지원과 함께 <비타민> MC까지 맡게 돼 TV와 라디오를 넘나드는 활약을 보여 줄 것이다. **2라디오(106.1MHz) 월~일 오전 7시 10분(4월 8일 첫방송)**





로맨틱 생존 코미디
직장의 신

〈직장의 신〉은 회사 간부도 꿈쩍 못 하게 만드는 카리스마 ‘슈퍼 갑 계약직’ 미스 김을 둘러싼 식품 회사 직원들의 좌충우돌 스토리를 담은 오피스 드라마. 김혜수, 오지호 등 명배우들의 코믹 연기와 로맨틱 대결이 재미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디터 김선아 사진 KBS미디어, MI Inc.

새 월화드라마 〈직장의 신〉은 부장님도 찢찢매는 ‘슈퍼 갑 계약직’ 미스 김(김혜수)과 그녀를 둘러싼 직장인들의 일과 사랑을 차별화되고 리얼한 에피소드 안에 유쾌하고 발랄하게 그려 낸 본격 로맨틱 생존 코미디. 김혜수와 오지호가 남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정유미, 이희준, 전혜빈, 조권, 김응수 등 스타 배우들과 명품 조연이 대거 출연, 막강 라인업을 자랑한다.

〈직장의 신〉은 tvN 〈꽃남 라면가게〉를 집필한 윤난중 작가가 극본을 썼고 KBS 〈우리집 여자들〉, 〈내사랑 금지옥엽〉의 전창근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지난 2007년 일본 NTV(Nippon Television Network Corporation)에서 방송된 〈파견의 품격, 만능사원 오오마에〉가 원작. 당시 일본에서 높은 시청률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킨 작품이다. 〈직장의 신〉은 검증받은 원작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더욱 리얼한 오피스 스토리로 웃음과 공감을 업그레이드했다.

극 중에서 계약 사원인 김혜수는 못 하는 일이 없는 슈퍼 우먼이지만 이룸도 소속도 배일에 싸여 동료 사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인물. 김혜수는 특유의 카리스마와 함께 숨겨진 코믹 본능을 표출, 지금껏 연기한 적 없는 이색 캐릭터를 선보이고 있다.

오지호는 정규직 사원으로 사내 최연소로 회사에서 보내 준 MBA 과정을 마치고 갓 귀국한 엘리트 인재 ‘장규직’ 역으로 분했다. 미스 김과는 사사건건 부딪치면서도 미스 김의 매력에 때때로 묘한 감정에 휩싸이는 캐릭터로 등장한다.

정유미는 낮은 스펙으로 입사 시험에서 번번이 떨어지다가 가까스로 계약직 신입 사원이 된 ‘정주리’ 역을 맡았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톡톡 튀어나오는 사투리가 특기며, 직장 상사 장규직을 짝사랑하는 캐릭터다.

이희준은 오지호가 연기하는 장규직의 입사 동기이자 친구인 ‘무정한’ 역으로 출연 중이다. 무정한은 이름과 달리 무한정의 정을 가진 인물로 장규직과 성품, 태도, 가치관 등 모든 면에서 대조를 보인다. 〈넝쿨째 굴러온 당신〉에서 보여 준 이희준만의 독특한 ‘휴머니즘 연기’가 빛을 발한다.

‘정글 여전사’로 털털한 이미지를 알린 전혜빈은 극 중에서 엄친딸 ‘금빛나’로 변신했다. 집안, 재력, 스펙 삼박자를 두루 갖춰 부러움과 시기심을 한 몸에 받는 신입 사원이다. 아이돌 스타 2AM의 조권은 바른 사원 ‘계경우’로 첫 정극 연기에 도전했다. 이룸처럼 경우가 밝고 예의가 바른 신입 사원으로 ‘깍’을 버린 조권의 연기 변신이라 더욱 의미 있다.

베테랑 연기파 배우들은 ‘간부 라인업’을 구축, 극의 완성도를 높였다. 출세 가도를 달리며 장규직을 총애하는 ‘황갑득 부장’ 역엔 배우 김응수가, 황부장과 입사 동기이지만 만년 과장인 ‘고정도’ 역엔 배우 김기천이 열연하고 있다. 또 김나운은 노련한 커리어우먼 ‘여장미’ 부장을 맛깔나게 소화한다. 이로서 〈직장의 신〉은 최고의 흥행 배우에서부터 연기파 중견 배우, 아이돌 스타에 이르기까지 친구 조화를 이룬 최고의 캐스팅으로 대한민국 누구나 공감하는 드라마로 다가오고 있다. 제작사 관계자는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





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면서 슈퍼 만능 사원 '미스 김'의 활약을 통해 시청자들이 속이 후련해지는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장의 신〉은 히어로물이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들으면 놀랄 노자겠지만, 어쨌든 미스 김은 배트맨에 필적할 만한 여자다. 배트맨은 출동할 때 항상 검정 배트슈트를 입지만 미스 김은 출근할 때 항상 긴 정장 바지와 목 끝까지 채운 무채색의 블라우스를 입는다. 배트맨은 배트카를 타고 고담 시로 출동하지만 미스 김은 172번 간선 버스를 타고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으로 출근한다. 배트맨이 배터랭을 던져서 적진을 뚫는 동안 미스 김은 '뿔어뵙'으로 회사 번기를 뚫고, 배트맨이 배트건을 쓰며 적들을 물리치는 동안 미스 김은 124개의 자격증으로 정규직 직원들을 제압한다. 그리하여 배트맨이 배트윙을 날리며 평화 사회 구현을 이룩하고 사라진다면, 미스 김은 청구서를 날리며 자신의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시간 외 수당'을 이룩하고 사라진다.

모든 히어로물의 필수 요소인 히어로의 약점과 천적이 미



스 김에게도 있다. 배트맨이 유틸리티 벨트를 벗기면 힘을 못 쓰듯이 미스 김은 망사 머리끈을 벗기면 힘을 못 쓰고 여자로 변신한다. 배트맨에게 광기로 무장한 천재 악당 조커가 있다면, 미스 김에게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무장한 아부 수재 장규직이 있다. 정말 배트맨에 비길 만한 히어로 물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쯤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한 가지! 대한민국 샐러리맨들에게는 미스 김이 배트맨보다 1.5배 정도는 더 통쾌할거란, 바로 그 사실이다.

〈직장의 신〉은 철저한 현실 속에 탄생한 판타지다

미스 김이라는 캐릭터가 도저히 한국 사회에 있을 수 없는 히어로인 반면, 미스 김이 현존하는 곳은 너무나 한국적이고 현실적인 곳이다. 회사인지 호텔인지 모를 만큼 발길 닿는 곳곳마다 먼지 한 톨 없는 그 대리석 세트장 같은 회사 말고, 직원인지 하인인지 날마다 천근만근 정수기통을 들어 메다꽃아야 하는 그런 회사 말이다. 50대에 술배가 좀 나와 쥐야 겨우 단다는 하늘 같은 본부장을 얼굴, 재력, 능력 다 갖춘 30대 초반의 엄친아들이 다 해 먹는 그 회사 말고,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기러기 아빠 김 부장

과 3차, 4차 순회공연해야 하는 회사다. 도대체 일은 언제 하는지 전 직원이 연애만 하는 회사 말고, 야근에 주말 잔업에 강제로 가입된 사내 동호회까지 청춘을 다 바쳐 버린 회사다. 징글징글 구질구질 그만둘까 로또 살까 하다가 이번 달만, 카드 값만 내자면서 결국 오늘도 만원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바로 그곳이다. 강남역 사거리에서 광화문 사거리까지 징글징글하게 들어선 수많은 회사 건물들, 그중에 제일 후진 사무실이 바로 미스 김이 다니는 회사다.

〈직장의 신〉 시청 포인트

에피소드의 차별화

〈파견의 품격, 만능사원 오오마에〉에서 오오마에가 참치 해체 요리사와 검도 유단자 등 멋있고 화려한 일본식 그림을 선보였다면, 〈직장의 신〉의 미스 김은 마트 계산원에서 골프 캐디, 기간제 교사에서 때밀이 아줌마까지, 너무도 현실적이고 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직업들의 의외성을 보여 준다. 마트 계산원의 화장실 연속 참기 기술, 때밀이의 때수건 두 번 돌려 감아 발가락 사이 때 밀어내기

신공 등 조금은 과장되었지만 프로페셔널한 미스 김의 활약을 통해 비정규직이라는 분야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가족사와 과거의 비밀들

미스 김뿐만 아니라 그녀와 삼각관계인 두 남자, 그리고 주변 인물들까지 모든 인물에게는 과거 각자의 비밀이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은 2007년 12월 24일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다. 언젠가부터 등장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 굶어 죽는 사람은 없는데 '살기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기 시작한 사람들. 결혼은 때가 되면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되면 할 수 있는 렉서리한 제도가 되었고, 내 집 마련은 했는데 당장 생활비가 없는 하우스푸어도 생겼다.

이 드라마는 몇 년 사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는 한국 사회의 구조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 구조를 들여다보기 위해 제작진은 인공위성이 아닌 현미경을 이용한다. 인공위성으로 내려다보는 지구의 모습이 아닌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아야만 볼 수 있는 지구의 어느 한 지면을 열심히 기어 다니고 있는 개미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

창의적인 미스 김 캐릭터

여, 나이 미상, 소속 미상, 신원 미상. 미스 김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천지간에 오로지 나와 수당과 자격증만이 존재하는 국내 최초 자발적 비정규직이다. 아직 20대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미 불혹을 넘긴 나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항상 긴 정장 바지와 무채색의 블라우스, 쌍팔년도 시대의 망사 머리끈으로 머리를 질끈 동여맨 모습으로,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스타일과 말투를 항상 유지한다. 상대방이 이상하게 '을'이 되게 하는 재주가 있다.

한 회사에 계약직으로 들어가면 계약 기간은 절대 3개월 이상을 넘기지 않는다. 어느 회사를 들어가든지 담당 업무 외의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3개월의 계약이 끝나고 나면 3개월은 한국을 떠나 세계를 떠돈다. 그래서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없다. 집, 통장, 적금, 가족……. 하지만 문제 없다. 124개의 자격증과 망사 머리끈만 있으면 혼자서도 세계 어디에서든 살아갈 수 있으니.



시청자 호응으로 탄생한

〈공부하는 인간〉 종합 편

2013년 KBS의 첫 대작 다큐멘터리 〈공부하는 인간〉 제작진은 시청자 호응에 보답하기 위해 4부작에 이어 종합 편 제작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지난 3월 16일 홍대에서 시청자와의 만남을 가졌다. 이 시청자 토크에는 〈공부하는 인간〉의 스토리텔러 중 두 사람인 릴리안 마글린과 스캇 임이 참석해 시청자 80여 명과 함께 공부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공부하는 인간〉은 시청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제작 발표회 때에도 시청자들을 극장으로 초대 한 바 있다. 1TV 3월 28일 목요일 밤 10시 방송분

조선판 도망자 이야기, 〈천명〉



〈아이리스 2〉 후속으로 방송되는 수목드라마 〈천명(天命)〉은 인종 독살 음모에 휘말려 도망자가 된 내의원 의관 최원의 불치병 딸을 살리기 위한 사투를 그린 작품으로, 조선판 도망자 이야기다. 이동욱, 송지효, 윤진이, 임슬옹, 송중호, 최필립 등의 스타들이 출연한다. 조선 중종 말년(1544년) 어느 밤, 세자 주치의가 처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된다. 내의원 의관 최원이 이 사건의 누명을 쓰지만 극적으로 탈옥한다. 그런데 일개 의관의 추모 여부에 동궁전과 중궁전, 조정 대신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급기야 은밀히 최원을 제거하려는 자객까지 등장한다. 냉혹한 추적자들과 최원의 쫓고 쫓기는, 숨 막히는 추격전이 펼쳐진다.

2TV 4월 24일 수요일 밤 10시 첫 방송 예정

HOT ON AIR

에디터 김선아
사진 KBS 홍보실

〈뮤직뱅크 in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에 분 K-POP 열풍

지난 3월 9일 〈뮤직뱅크〉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교 40주년을 기념해 자카르타에서 2013년 첫 해외 공연을 선보였다. 자카르타의 GBK 경기장은 K-POP 스타가 총출동한 〈뮤직뱅크〉를 보기 위해 각지에서 달려온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 2만 3천여 명의 관중은 슈퍼주니어, 샤이니, 2PM, 비스트, 인피니트, 씨스타 등이 펼치는 공연에 시종일관 환호와 갈채로 화답했다.

2TV 3월 19일 화요일 밤 11시 10분 방송분



러시아 전 상원의원 부녀,

〈뮤직뱅크〉 보러 한국 왔어요

러시아 연방 전 상원의원이며, 모스크바 국립대 교수인 클렘 페티소프 박사와 그의 딸인 알리사 양이 〈뮤직뱅크〉 녹화 현장을 찾아 샤이니와 인피니트 등 K-POP 스타들의 공연을 관람했다. 〈뮤직뱅크〉를 매주 챙겨 본다는 알리사 양은 K-POP 스타 가운데 특히 샤이니의 열혈 팬이다. 페티소프 박사는 러시아에도 뮤직뱅크 공연이 이뤄지길 바라는 50만 여 명의 K-POP 팬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TV 3월 29일 금요일 저녁 6시 10분 방송분



장애인 앵커 홍서윤 씨 선발

최초 장애인 앵커 이창훈 씨에 이어 두 번째 장애인 앵커로 홍서윤 씨가 선발되었다. 지체 장애 1급으로, 104 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선발된 행운의 앵커다. 서울

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그녀는 앞으로 뉴스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한 실무 교육을 받은 뒤 〈KBS 뉴스 12〉에서 생활 뉴스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이창훈 앵커는 2TV 〈사랑의 가족〉 프로그램에서 고정 코너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최초 융합형 양방향 서비스, iCon

방송과 인터넷을 하나로 묶은 융합형 양방향 TV 서비스인 아이콘 서비스가 지난 19일 국내 최초로 본격 개시됐다. 2013년형 스마트 TV에 기본 탑재되는 신개념 서비스로, 뉴미디어센터와 기술연구소가 OHTV(Open Hybrid TV) 표준 기반으로 삼성전자, LG전자와 개발했다.

KBS의 공식 웨이보 MyloveKBS를 이용한 적극 홍보

KBS의 공식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MyloveKBS를 이용한 홍보가 한창이다. 지난 3월 22일에는 중국 북경 전매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환경보호를 주제로 깜짝 이벤트를 벌여 KBS 공식 트위터를 알렸다. 2012년 5월에 개설된 중국 웨이보 계정의 팔로우 수는 현재 9만 5천여 명이다.



길환영 사장, ABU DBS에 참석해 TVRI와 방송 협력 협정 체결



지난 3월 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태 지역의 대표 디지털 방송 국제 심포지엄인 ABU DBS(Digital Broadcasting Symposium)가 개최되었다. 〈뮤직뱅크〉 자카르타 공연 전 기초연설을 위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길환영 사장은 이번 방문 기간 동안 TVRI(인도네시아 국영 텔레비전)와 방송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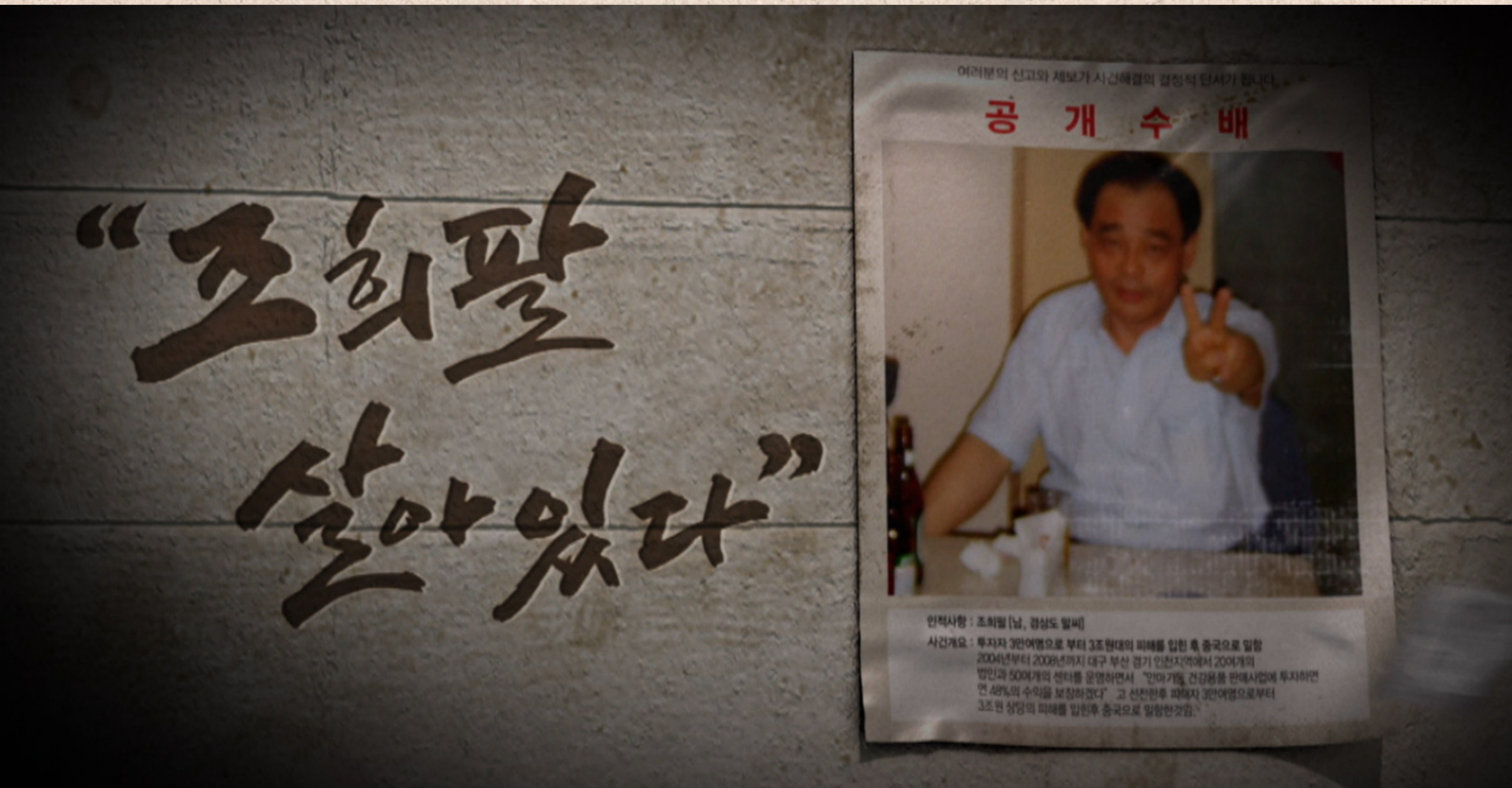
〈KBS 이산가족찾기〉 영상, 유네스코 등재 추진

서울시가 〈KBS 이산가족찾기〉 영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KBS가 1983년 6월 30일 부터 11월 14일까지 138일간 453시간 45분 동안 생방송으로 방영한 〈KBS 이산가족찾기〉 영상은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생생하게 보여 주는 역사적인 기록물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방송 4사, 지상파 서비스 고도화 위한 공동 협약 체결

지난 3월 26일 KBS 등 지상파방송 4사가 지상파 서비스 고도화 추진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방송 4사 기술부문장들은 “지상파방송은 시청자의 욕구 충족과 시청 복지 향상을 위해 다채널 프로그램과 초고화질 TV(UHDTV) 등 디지털 TV 시대에 부합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희팔 사건’은 진행형이다!

글 안양봉 기자(KBS 사회부) 사진 KBS 홍보실

〈시사기획 창〉-‘조희팔은 살아 있다’로 2012년 제44회 한국 기자상을 받았다. 한국기자협회 등록 회원이 1만여 명이라고 하니, 더할 수 없는 영광이고 명예다. 그러나 조희팔 사건으로 여전히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만 명의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마냥 좋은 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과장된 연출 ‘장례식, 과연 진실일까?’로 시작한 취재

2012년 5월 21일, 많은 사람이 TV 뉴스를 통해 조희팔의 장례식을 지켜봤다. 황금색 두건을 머리에 두른 남자가 망자의 얼굴로 투명한 유리관 안에 누워 있다. 카메라가 천천히 움직여 접근해서 유리관 안에 누워 있는 사람이 분명 ‘나는 조희팔이다’고 강조한다. 누가 보더라도 ‘조희팔’이라는 인물은 이미 죽었고, 분명 그의 장례식이 열렸음을 보여 주기 위해 촬영한 영상이다.

모든 촬영에는 ‘촬영 의도’가 담겨 있다. 곧 촬영에 앞서 ‘이 영상으로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리는 것이다. 조희팔 장례식 영상에는 조희팔의 죽음을 전하고 싶은 촬영 의도가 담겨 있다. 그렇다면 조희팔의 죽음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이고, 또 그의 죽음을 알리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

흔히 조희팔 사건을 이야기할 때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경찰 추산 3조 5천억 원, 피해자 3만여 명……. 그러나 조희팔 사건은 2008년 조희팔의 중국 밀항과 2012년 경찰의 사망 발표로 미궁에 빠졌다. 드



러난 은닉 자금은 2천 억 정도에 불과하고, 비호 유착 세력을 밝히는 수사도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조희팔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은 조희팔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는 중요한 단초이다.

조희팔 사망의 진실, 너무나 쉽게 해결된 의문

2012년 11월, 조희팔이 밀항해서 도피 생활을 하던 중국 산둥 성으로 갔다. 조희팔 옛 측근과 피해자 등을 통해 조희팔의 중국 은신처, 자주 다니는 식당과 골프장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은신처 아파트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자주 드나든 식당에도 발길을 끊은 지 오래돼 최근의 행적을 알지 못했다.

조희팔은 정말 사망한 것일까? 다시 취재를 시작했다. 우선 조희팔이 사망한 장소로 발표된 웨이하이의 한 호텔로 찾아갔다. 그런데 호텔 직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전혀 다른 말을 한다. 조희팔이 자주 갔다는 골프장은 어떨까? 골프장 네 곳을 뒤졌다. 그런데 그중 두 곳에서 조희팔과 2인자 강태용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쏟아졌다. 사망했다는 2011년 12월 이후,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골프장을 드나들었다는 것이다. 엔타이 공안국을 직접 취재하기로 했다. 엔타이 공안국은 조희팔과 함께 인터폴에서 수배한 일당 2명을 체포해 한국으로 보낸 수사기관이다. 그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경제범죄수사대장이 폭탄선언을 한다. “조희팔이 지금도 칭다오, 웨이하이, 엔타이에 거처를 마련하고 숨어 살고 있다.”, “일당 두 명을 체포할 때 조희팔을 검거할 수도

있었지만 상부의 지시가 없었다”, “조희팔은 죽지 않았다. 지금도 지시만 있으면 체포할 수 있다.”

사실 많은 언론에서 그동안 조희팔이 과연 사망한 것인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사가 피해자 단체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정황 정보여서 기사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런데 중국 공안 수사 책임자의 육성으로 전해진 조희팔 생존 증거는 일파만파로 큰 파장을 남겼다. 대부분의 언론이 KBS를 인용해 보도했다. 결국 경찰은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조희팔 사건은 진행형이다

취재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를 만났다. 그들은 대부분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온 서민들이었다.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 같은 재테크는 엄두도 못 내는 서민들. 그들에게만 그만한 돈도 없었고 그런 수완을 부릴 만큼 돈벌이에 밝지도 않았다. 평생 몸을 던져 받은 소득을 아껴 가며 씀짓돈을 마련했다. 그 돈은 자녀의 결혼 자금이고 전세금이고 집 한 칸 마련하려고 수십 년 모은 돈이며 나이 들어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 보겠다며 모아 놓은 돈이었다. 그 돈을 더 부풀려 준다는 말에 감쪽같이 속고 말았다. 조희팔 사기단에 귀한 돈을 오롯이 털어 넣고 말았다. 그 상실감이 어떨까? 우리 사회는 그들의 상실감에 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희팔을 빨리 검거해야 한다. 조희팔 사건은 피해자들에게만 진행형일 수 없다.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진행형의 사건이다.

〈시사기획 창〉의 대형 상 수상이 당연한 이유

〈시사기획 창〉은 기자들이 만드는 정통 시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다. 〈시사기획 씬〉과 〈시사기획 KBS10〉의 맥을 잇는 고품격 심층 탐사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중견 기자들의 풍부한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 고발을 넘어 진실을 찾아가는 이 프로그램의 매력은 무엇일까?

글 이승환 기자(시사제작국 탐사제작부) 사진 KBS 홍보실



‘중견 기자들이 만드는 고품격 심층 시사 다큐멘터리’. 〈시사기획 창〉이 내걸고 있는 간판이다. 지상파 TV의 시사·다큐멘터리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하향세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는 요즘, 이렇게 정통 시사 다큐를 지향하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식’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래도 꼭 그렇지만은 않음을 말해 주는 반가운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방송된 〈시사기획 창〉이 잇따라

대형 상을 수상해 시사 다큐의 파워와 영향력을 보여 주며 KBS의 공영성 강화에 상당한 기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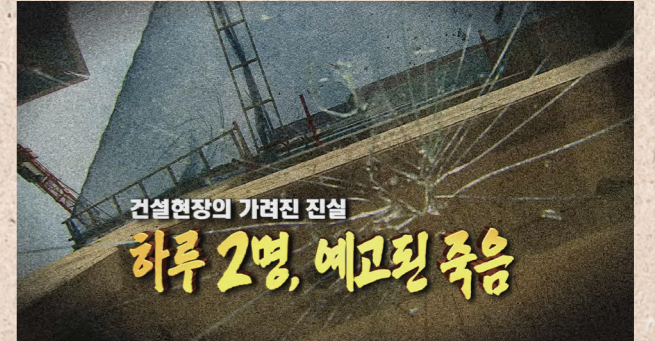
최근 안양봉 기자가 취재, 연출한 〈시사기획 창〉-‘조희팔은 살아 있다’가 한국기자협회가 수여하는 2012 한국기자상 기획부문 부문상을 수상했다. 한국기자상 심사위원장은 심사 평에서 이렇게 밝혔다. “KBS의 〈시사기획 창〉-‘조희팔은 살아 있다’는 문제 제기도 좋았고 취재에도 공을 들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사기획 창〉 팀이 ‘이달의 기자상’을 모두 다섯 차례나 수상하는 뛰어난 취재력과 취재 성과를 보임에 따라 어떤 보도를 최고 수작으로 꼽을지를 놓고 심사위원단이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여기에서 〈시사기획 창〉은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방송학회가 선정한 2012 한국방송기자대상 기획부문 부문상(‘대기업과 조세정의’)과 방송기자클럽이 수여하는 올해의 방송기자상 기획부문 부문상(‘정의사회 구현’), 삼성언론상 영상편집상(‘빅데이터 세상을 바꾸다’),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상(‘임신하면 안 되나요?’), ABUS(‘위기의 시대 목마른 지구촌’) 등 주요 상을 대거 수상했다. 사내에서 받은 우수 프로그램상도 여러 편에 달하는 등 〈시사기획 창〉이 지난해 회사 내외에서 받은 상(방송 일자 기준)이 모두 25개에 달한다.

〈시사기획 창〉의 이런 성과는 그동안 〈시사기획 씬〉에서 〈시사기획 KBS10〉 그리고 〈시사기획 창〉으로 이어지며 쌓인 제작 역량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기자들이 만드는 심층 시사 프로그램’으로서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깊이 있게 파고들고 공정하고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하려는 지향점이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시사기획 창〉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상파뿐 아니라 종편 등 수없이 늘어나는 시사 프로그램 가운데 차별화되고 품격 있는 〈시사기획 창〉만의 색깔과 느낌을 어떻게 시청자들에게 인식시킬 것인지 하는 고민이다. 방송 일자가 ‘가난한 집 제삿날 돌아오듯’ 찾아오다 보니, 12명의 중견 기자들이 두 달여 만에 하나씩 사회적 ‘아젠다’를 내놓기가 버거울 때가 많다. 사내의 다른 시사 프로그램과 제작비를 비교해 보면 비교할 만한 다른 프로그램의 60~70%에 그치고 있다.

이런 애로점을 안고 있지만 〈시사기획 창〉의 지향점과 관련한 제작진의 공감대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1분 20초의 뉴스 리포트로는 담기 힘든 깊이 있는 진단과 시청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슈를 어떻게 기자들의 무기인 ‘현장성’을 통해 담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도 기자들이 공유하는 대표적인 고민이다. ‘현장성’을 통해 시청자에게 단번에 다가가는 소통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공영방송 시사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



었다는 우려의 시각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젊은 층이 많이 시청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이어진다. 〈시사기획 창〉은 이런 징후들 속에서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좌표를 다시 조정해 가려고 한다. 그동안 〈시사기획 창〉이 꽤 높은 시청률을 올린 점도 좋은 참고 대상이다. AGB닐슨 미디어리서치가 집계한 전국 시청률 기준으로, ‘정의사회 구현’이 9.3%, ‘4대강 22조원 공사비의 비밀’과 ‘급발진, 그들은 알고 있다’가 각각 8.4%였다. 이런 수치가 제작진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런 것이 아닐까? ‘시사의 창’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이 의미 있고 유익하다면 시청자들은 가까이 시간을 내서 시청한다는 것 말이다. 기자들이 만드는 국내 유일의 정통 ‘시사 다큐’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 본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힐링 프로그램

<가족의 품격 풀하우스>

가깝고도 먼 가족의 의미와 소통, 삶을 풀어내는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가족의 품격 풀하우스> 제작 현장에 다녀왔다.

글 최미혜 사진 장병희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하고 웃었던 것이 언제였는지 아련해진다.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사이, 바로 가족이다. <가족의 품격 풀하우스>는 매일 부딪치는 직장 동료들보다, 혹은 출퇴근 시간에 마주치는 낯선 이들보다 더 먼 사이가 되어 가는 우리나라 가족의 단상을 보여 준다. 이제는 '버럭'이 아닌 소통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국민 MC 이경규와 숨겨 뒀던 예능감을 맘껏 뽐내고 있는 이정민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은 <가족의 품격 풀하우스>는 가족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예능 대세로 우뚝 선 <개그콘서트> 팀의 콩트를 통해 가족의 문제를 제시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연예인 패널들이 이에 대해 토크를 나누는 것. 첫 회에는 윤형빈, 정경미 커플이 출연해 결혼에 관한 솔직한 입

담을 선보여 주목받았으며, 평소 예능 프로그램에서 만날 수 없었던 연기자 김용림, <사랑과 전쟁>의 '국민 불륜녀'로 불리는 연기자 민지영 등의 출연진이 나와 녹화 현장의 분위기를 달구기도 했다.

녹화가 시작되기 전 현장에는 개콘 팀의 '불편한 가족' 콩트 리허설이 한창이었다. 실제 부부인 김원호와 심진화가 부부 역할, 개콘 팀의 라이징 스타 김지민이 딸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다른 스케줄로 잠시 자리를 비운 박지선을 대신해 남자 스태프가 어머니 역의 공백을 메운다. "위트 있다! 센스 있다!" 하며 박지선의 유행어를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는 스태프 때문에 이따금 웃음이 새어 나왔다. 동선 하나하나까지 체크하며 리허설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PD와 스태프,

연기자들 사이에 소통이 이뤄진다. 이때 심진화가 "제가 이쪽에 앉고 원호 씨가 이쪽에 앉을게요" 하며 옆자리로 옮긴다. 이렇듯 개콘 팀이 진지하게 리허설에 임하는 동안 20여 명 남짓한 스태프 역시 대본을 차례로 넘기며 진행 상황을 체크한다. 그러는 중 이날 게스트로 출연하는 다비치의 강민경과 노유민, 이명천 부부가 인사를 건네며 세트로 들어왔다. 그리고 남편들의 동창 모임에 아내들이 들이닥치는 상황을 연출한다. 동창 역할을 맡은 강민경이 등장하자 노유민은 세트가 무너져라 뛰고, 김원호는 한걸음에 달려가 반갑다고 포옹한다. 이윽고 심진화와 이명천이 나와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는다. "뭐! 목소리가 꺾꼬리 같이 어쨌다고!" 하며 강민경에게 소리 치던 심진화는 "어머, 나도 모르게 육하네" 하며 손 부채질을 한다. 덕분에 스태프 모두 빵 터졌다. 콩트를 지켜보던 김호상 PD는 중간중간 연기자들에게 리액션을 주문하며 리허설의 분위기를 이끈다. 마지막에 심진화가 김원호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끌고 나가는 장면은 현장에서 김호상 PD가 보낸 아이디어였다. 리허설이 끝나자 작가가 연기자들에게 다가가 의견을 조율한다. 호칭이나 톤의 높낮이 조절 등을 세밀하게 수정한 뒤

잠시 세트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촬영 시 카메라 앵글에 걸릴 만한 물건들을 모두 치우고 세트 바닥을 닦고, 잠시 숨을 돌리는 시간이다. 녹화 시간이 다가오자 이윤석, 박준규, 이승신 등 연예인 패널과 전문가 패널이 속속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시청자들의 공감 지수를 높여 줄 방청객들도 스튜디오 한쪽에 자리 잡고 신나게 웃을 준비를 한다. MC 이경규와 이정민 아나운서 역시 자리에 앉았다. 생기발랄하게 인사를 건네는 이정민 아나운서는 한껏 들뜬 표정으로 연신 웃음을 지어 보였고, 이경규 역시 대본을 체크하며 파트너인 이정민 아나운서와 간간히 대화를 주고받는다. 두 MC는 대본에 밑줄을 그어 가며 집중하는 프로다운 모습을 보였다. 녹화 전 마지막에 도착한 박지선은 스태프가 챙겨주는 간식도 마다한 채 분주하게 콩트를 준비했다. "스탠바이 해 주세요"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모든 출연진이 옷매무새를 다듬고, 드디어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한다. MC들의 활기찬 멘트로 시작된 녹화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패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리액션을 하는 MC들과 각 상황에 몰입해 의견을 나누는 패널들, 그리고 리얼하게 콩트를 진행하는 개콘 팀의 호흡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이다. 자칫 진지하게만 흐를 수 있는 주제를 가볍게 터치하면서 웃음으로 풀어 나가는 프로그램,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내는 소재들로 총체적인 가족 솔루션을 제시하는 <가족의 품격 풀하우스>는 시간이 흐를수록 잊혀져 가는 가족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힐링 타임을 선사할 것이다.



KBS 프로그램에 대한 깨알 같은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KBS 9시 뉴스

Q 3월 16일 (KBS 9시 뉴스)에 나온, 나무를 살려 건물을 지어서 벽 틈으로 나뭇가지가 나온 건물이 어디인지 알려 주세요.

A 파주 헤이리마을 백순실미술관(금산 갤러리)입니다. 주소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52-140이며 전화번호는 031-942-0670입니다. 백순실 화가가 건축주이고 우경국 건축가가 지은 이 갤러리 안에는 80년 된 굴참나무가 건물의 일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베어 내지 않고 공간을 만든 것이죠.

KBS 프로그램을 접하다 보면 생기는 다양각색의 궁금증과 KBS 전반에 관한 호기심. 궁금한 건 절대 못 참는 시청자들을 위해 준비한 온라인 (KBS 저널)의 속 시원한 답변들.

에디터 김선아 사진 KBS 홍보실



KBS 아침 뉴스타임

Q 2013년 3월 5일 (아침뉴스타임)에 나온 활력 충전 맛집이 어디인가요? 장어랑 닭이랑 전복을 같이 끓이는 곳으로 불로장생탕이라고 하는데,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A 별장가든은 장어 전문 식당으로 광어회, 우럭회, 매운탕을 판매하는 곳이며, 한강이 내다보이는 전망 좋은 음식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161-3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전화번호는 031-972-5610입니다.

2013 KBS 미니시리즈 극본 공모

Q 2013 KBS 미니시리즈 극본 공모에 응모하려는 데 작품 제목에 대해 질문 드려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목이 2000년대 초에 개봉되었던 외국영화 제목이랑 같더라고요. 혹시 다른 작품과 제목이 같은 게 문제가 되나요? 법적인 문제와 함께 공모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한국은 제목에는 저작권을 매기지 않기에 제목이 같은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예로 할리우드 영화 제목을 따라 한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많지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전우치) 등이 그 경우지요. 참고로 책 제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원 판결에서 제호의 저작물성을 인정된 사건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상 제호 역시 인간의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상표법에 의하거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식별 표지로서의 제목과 제호라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어 참고서 이름으로도 유명한 영화 (영어 완전정복)은 동아출판사(현재 두산동아) 영한사전을 영화 속에 등장시키는 등의 간접광고를 해 줌으로써 상표권을 사용한 대가를 지불했고, 영화 (아라한 장풍 대작전)은 1970년대 TV 만화 (마루치 아라치)를 제목으로 쓰려 했으나 상표권자와 협상에 실패해 제목을 바꿨습니다.



KBS 시청자 상담

Q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하고 싶은데, 어디에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려 주세요.

A 24시간 운영되는 KBS의 대표전화는 02-781-1000, 1588-1801, 1577-1300입니다. 내선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신료 상담은 1번, 전화번호 안내 및 시청자 상담은 2번, 디지털 전환 문의는 3번, 긴급 난시청 문의는 4번, 방송 프로그램 자동 안내(ARS)는 5번입니다. 이 밖에 KBS 시청자 상담실 홈페이지(iaudience.kbs.co.kr)에도 방송 프로그램 관련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KBS W

Q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KBS W라는 방송사를 봤어요. KBS와 관련 있는 채널을 모두 소개해 주세요.



A 'KBS W'는 KBS의 자회사인 KBS N의 여성 전문 텔레비전 채널로, 2013년 1월 1일에 개국했습니다. KBS N은 'KBS W' 외에도 5개의 채널을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KBS 드라마'는 드라마와 일부 예능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채널, 'KBS N 스포츠'는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각종 스포츠 중계와 일부 예능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채널, 'KBS 조이'는 예능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채널, 'KBS 프라임'은 다큐멘터리, 교양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채널, 'KBS 키즈'는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채널입니다.

<도전 골든벨> 정지원 아나운서의 한국어 퀴즈

에디터 최미혜 사진 KBS 홍보실



KBS 38기 아나운서로 입사한 정지원 아나운서는 현재 KBS1 <도전 골든벨>의 MC로 활약하고 있다. 야구 여신, 소녀시대 써니 다투는 등 빼어난 외모로 관심을 모았으며, 뛰어난 외국어 실력을 갖춘 IQ 156의 수재로 멘사 회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성과 외모를 겸비한 멀티테이너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지원 아나운서는 “입사하자마자 큰 관심을 보내 주셔서 감사 드린다. KBS의 간판 아나운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노현정, 이지애 아나운서를 닮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선배님들처럼 겸손하고 밝은 에너지를 가진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말의 주인인 우리가 정확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인의 자존심이라며 아름다운 한국어가 세계 곳곳에 정확하고 바르게 알려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정지원 아나운서가 내는 우리말 퀴즈
아래 문제들은 호칭에 관한 것입니다. 알맞은 호칭을 고르거나 정해 답해 주세요.

① 다음 중 본인의 아버지를 뜻하는 용어는?
영존 / 춘부장 / 엄친 / 자당 / 대인

② 남편의 형을 부를 때는 (시아주버님 / 시숙 / 아주버님)이라고 부른다.

③ 장가간 시동생을 부를 때의 호칭어는?

④ 오빠의 아내는 ‘언니’라고 부르고, 지칭어는 ()이다.

⑤ 사촌 형제의 아들은 나를 ()이라 부른다.

※ 퀴즈 정답자 중 3명을 추첨하여 <유희열의 스케치북> 방청권을 보내 드립니다. 응모하실 분은 온라인 <KBS 저널> 웹사이트(journal.kbs.co.kr) 이벤트 게시판에 4월 21일(일)까지 ‘우리말 퀴즈 응모’ 말머리를 달고 정답을 올려 주세요. 4월 중에 당첨자를 선정해 2분이 보실 수 있는 방청권(5월 녹화분)을 보내 드립니다.

지난 호 정답

- 쿵푸 팬더> **쿵후 판다**
- 미쓰 홍당무> **미스 홍당무**
- 넘은 먼 곳에> **임은 먼 곳에**
- Mr. 로빈 꼬시기> **Mr. 로빈 피기**
- 바람 피기 좋은 날> **바람피우기 좋은 날**
- 싸이보그지만 괜찮아>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달콤 쌉싸래한 초콜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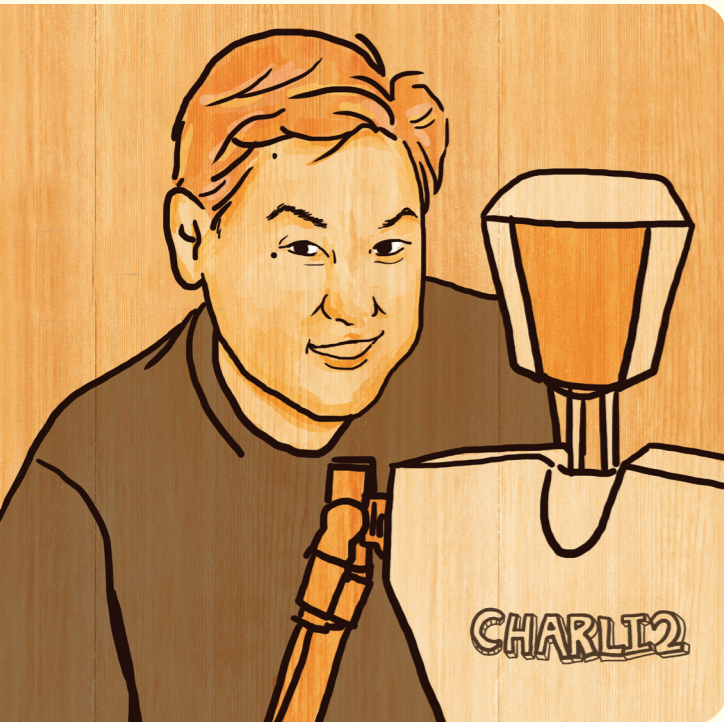
“가족은 제 인생의 버팀목이에요.” <한 지붕 세 남편>, 김세미 씨의 행복 찾기

세상에 이런 여자가 다 있을까. 남편을 비롯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시아주버니, 시동생 세 남자의 뒷바라지에 어린 딸(고은)까지 챙겨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던 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던 김세미 씨는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인간극장>에 출연한 이후 분식집을 열고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채워 가는 그녀를 <KBS 저널>이 만났다. 에디터 최미혜 사진 이민규

삶의 방향이 송두리째 흔들리거나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는 아무런 예정도 없이 다가온다. 누구나 고민한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것일까?’, ‘시간에 기댄 채 의미 없이 흘러가다 이대로 끝나 버리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다. ‘고은 맘’ 김세미 씨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KBS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삶의 방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단단해졌다고 말한다. “방송 이후 알아보시는 분이 많아요. 고생 많다, 예쁘게 산다, 요즘 이런 사람 없다며 다독거리 주셔서 감사드릴 뿐이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어요.” 그녀의 가족들 역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얼마 전 문을 연 가게에는 방송을 보고 찾아오는 손님이 많아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고, 가족 사이는 더욱 돈독하고 끈끈해졌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며 웃음을 잃지 않는 김세미 씨. 지금의 그녀를 만든 8할은 바로 ‘긍정의 힘’이었다. “우울했던 지난 시간을 버릴 수 있었던 건 긍정의 힘 덕분이었어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인생이 달라져요. 가족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인해 또 다른 관심사가 생긴 거라고, 가족이 있어서 고맙다고 말이지요. 가끔은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가족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니 화내는 일도 줄어들고 이해의 폭도 점점 넓어지더라고요.” 관계와 소통의 문제가 대두되는 요즘, 그녀가 말하는 삶의 의미와 가족 그리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가슴속 깊이 와 닿는다. “무엇이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맙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긍정의 힘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가령 ‘부모님이니 당연히 나를 먹이고 입히고 뒷바라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놓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뒷바라지까지 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생각의 전환이야말로 행복을 찾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을 알고 그 속에 담긴 참된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김세미 씨의 행복 찾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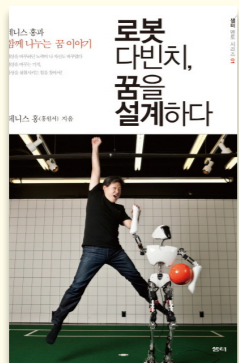
데니스 홍 교수의 교보문고 북갤러리

서점에 갈 때마다 베스트셀러 코너만 들락거리며 어떤 책을 고를지 고민하고 있다면 교보문고의 '구서재(九書齋) 북갤러리'를 주목하자. 미국 버지니아텍 교수이자 최첨단 로봇연구소 로멜라를 이끌고 있는 데니스 홍 교수의 추천 도서 몇 권. 에디터 최미혜 사진 KBS 홍보실, 교보문고

데니스 홍: 미국 버지니아텍 교수이자 최첨단 로봇연구소 로멜라(RoMeLa)를 이끌고 있는 그는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용 자동차를 개발해 '미국 과학 잡지 <파퓰러 사이언스>가 선정한 젊은 천재 과학자 10인에 꼽히기도 했다. 이미 자신의 목표를 이뤘지만 또 다른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으며, 두 차례의 TED 강연을 통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뜨거운 감동과 긍정의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는 데니스 홍 교수. 수많은 실패와 우여곡절에도 끝까지 꿈을 놓지 않았던 그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만든 것은 '책'이다. 그의 성장과 발전 과정에서 함께했던 책과 그의 위시 리스트에 오른 책 몇 권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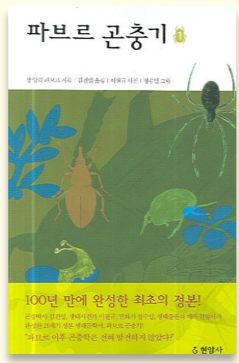
1 <로봇 다빈치, 꿈을 설계하다>

데니스 홍
로봇 공학자인 내게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은 의외로 꿈에 대한 것이다. 당시에는 그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 고민을 거듭했다. 그리고 2년 뒤 이 책을 썼다. 나 자신이 어떻게 꿈을 찾고, 꿈을 좇고, 내가 이룬 꿈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풀어냈다. 성공과 실패, 과학자이자 공학자로서 윤리에 대한 순도 100%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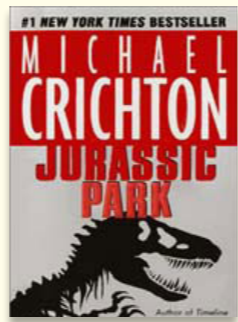
2 <파브르 곤충기> 장 앙리 파브르

이 책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어릴 때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편이었는데, 좋아하는 것 중의 하나가 스포이트로 학교 연못 물을 떠다가 현미경으로 여러 단세포 생물을 관찰하는 일이었다.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로봇에 적용시키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아메바를 본 기억으로 '아메바 로봇'도 만들었다. 생각해 보니 어릴 적에 이 책을 보며 꿈과 영감을 많이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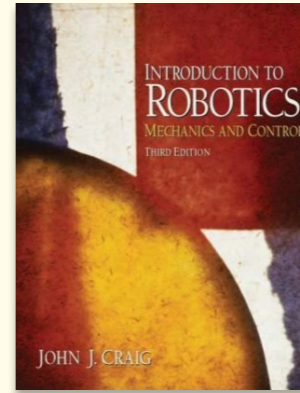
3 <쥬라기 공원> 마이클 크라이튼

인간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더라도 자칫하면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로봇의 특성 때문에 딜레마에 빠졌던 적이 있다. 사실 이런 고민을 하기 전에 읽었던 책이 <쥬라기 공원>이다. 공룡의 DNA를 추출해 이를 복제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데, 이 책을 읽으며 결국 내가 고민했던 것이 인간 윤리의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다. 내 삶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했던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책.



4 <Introduction to Robotics : Mechanics and Control> John J. Craig

로봇에 대해 공부하고 싶지만 복잡한 수학 공식과 어려운 내용 때문에 책 한 권 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면 이 책을 읽어 보기 바란다. 거의 모든 로봇에 관한 책들은 컴퓨터 과학이나 전기 전자 공학을 전공한 이들이 집필하는데, 이 책은 기계과 교수가 썼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 때문인지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로봇의 기본 정보를 알고 싶은 이들이 읽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5 <아낌없이 주는 나무> 쉐일버스타인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읽은 책인데, 그림이 심플하고 글도 별로 없어서 자주 읽던 기억이 난다. 지금 나는 꿈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로봇을 만들며 즐거움을 느끼고, 내가 개발한 기술이 사람들을 돕고 사회를 이롭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꼬마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며 행복해했던 나무처럼 나도 그 나무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6 <꿈을 이뤄드립니다> 이채영

내가 책을 쓰게 된 동기를 부여한 책이다. 뉴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저자가 미국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9명을 만난 이야기다. 씩스럽지만 내 얘기도 있다. 이 책은 성공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든다. 돈과 명예를 얻는 것이 성공의 전부가 아님을 말이다. 각 인터뷰어가 말하는 성공의 의미와 그들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New Books 따뜻한 봄날, 맛있는 책 읽기

<러시아 문학의 맛있는 코드> 석영중

음식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관심사이며, 동시에 흥미를 자극하는 소재다. 작가들 역시 이런 음식의 유혹 앞에 예외일 수 없었다. 이 책에서는 푸슈킨에서 솔제니친까지 위대한 거장들이 초대하는 문학과 음식의 향연이 펼쳐진다. 각 거장들이 음식을 어떤 코드와 상징으로 끌어들이 자신의 문학 세계를 일궜는지,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가쿠타 미츠오

<치즈랑 소금이란 콩이랑>을 통해 슬푸드(soul food)를 소개한 바 있는 저자가 풀어놓은 '맛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 화려한 요리나 격식을 갖춘 삼차림이 아닌 일상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한 끼 식사에서 소소한 행복을 선사했던 맛있는 기억들을 전달한다. 양고기를 먹을 때는 자신이 양파라는 사실에 자랑스러움을 느끼거나, 본 적 없는 돼지고기 상표를 보면 신대륙을 발견한 듯 가슴이 설레거나 하는 꾸밈없이 담백하고 소박한 50여 가지 일화를 만날 수 있다.



<스피릿 로드> 탁재형

EBS TV 프로그램 <세계테마기행>의 PD인 저자가 경험한 각국의 술에 대한 이야기다. 한 민족이 살고 있는 자연환경과 성정, 특질이 농축된 문화의 결정체를 술로 정의하고, 여행지에서 마시는 술이야말로 그 지역의 문화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경험이라고 강조한다. 한 대 언어맞은 것 같은 강렬함을 남겼던 술의 맛과 향 그리고 술에 얽힌 때론 황당하고 때론 진중한 에피소드들을 통해 '술'에 대한 저자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 저자의 독특한 유머 감각과 솔직 유쾌한 화법을 만나는 재미도 있다.



창간 기념
이벤트
2탄

KBS 저널 홍보왕을 찾아라!!!

방송 이면의 숨겨진 재미난 뒷이야기가 가득 담긴 KBS 이야기 종합선물세트 온라인 <KBS 저널>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께 SNS를 통해 마구마구 소문을 내주세요. 홍보한 활약상의 URL을 복사해서 올려주시면 채택되신 분들께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 소문내는 방법-
- 1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개인 SNS에 온라인 <KBS 저널>을 홍보한다.
 - 2 각자 홍보한 활약상의 URL을 복사해서 알려주세요.

접수 4월 21일(일) 밤 12시까지
발표 4월 24일(수)
KBS 홈페이지와 온라인 <KBS 저널> 사이트 동시 발표



선물 내역

★ 최우수작 1편
아이패드




★ 우수작 8편

- 리컵 식품건조기 3대
- 대명리조트 숙박권 5매 (콘도 8곳, MVL호텔 2곳 사용 가능)

★ 가작 5편

따끈따끈 신간 도서 5권






가족의 품에 포옹

" @ 246 @ KBS 저녁 "

Shin Seungyeon

@ 246 @ 시지연 님께



가족의 품에 포옹

KBS 의 저녁방송팀
기원합니다!

윤리인 KBS 저녁!

Shin Seungyeon

계고유현 김지연 님께



온라인 KBS 저널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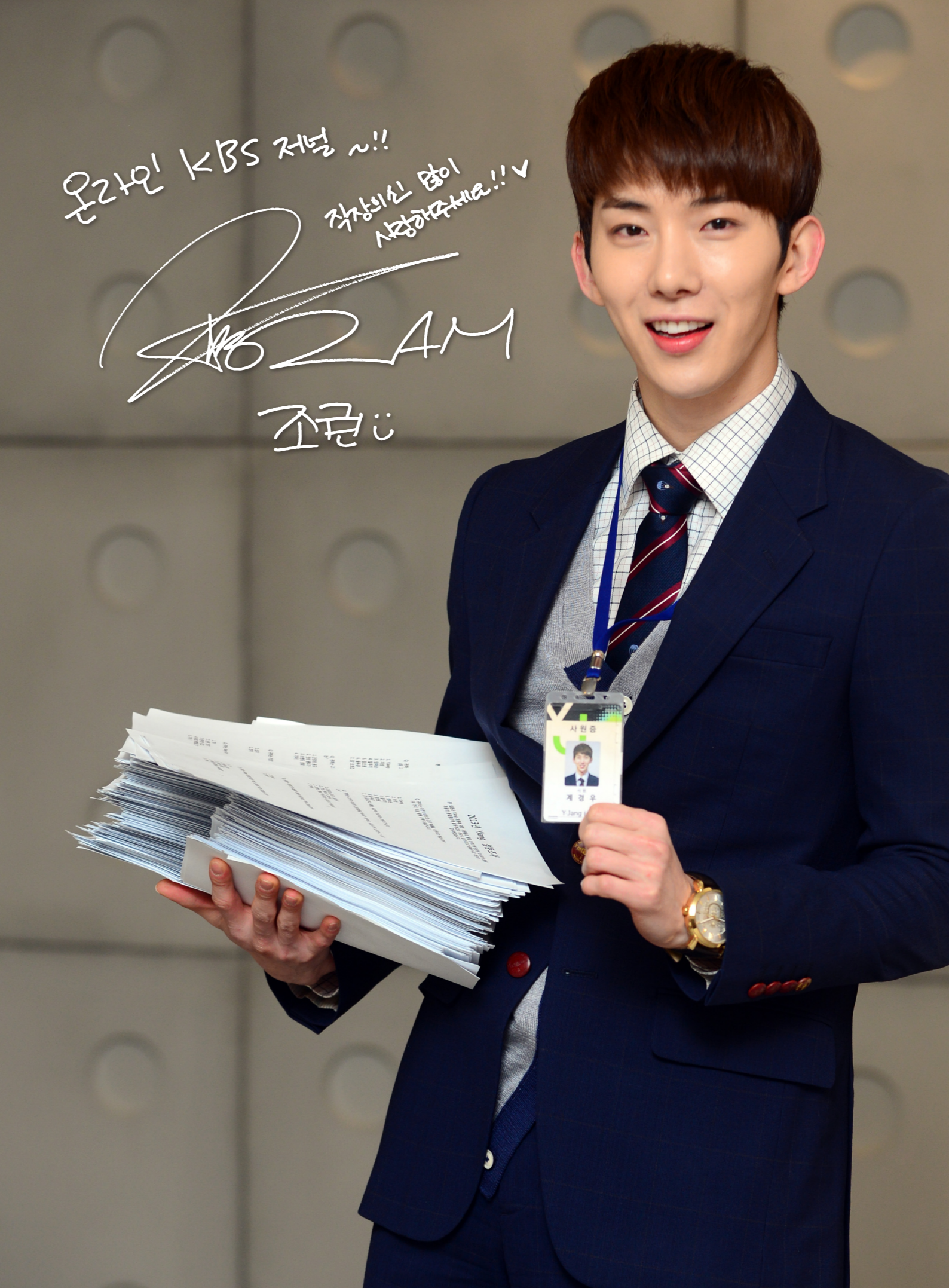
박지선

KBS 22기 희극인
고맙습니다

파이팅!

사랑

7



온라인 KBS 저널 ~!!

작업하신 많이
사랑해주세요!!~

조규민

조규민

